

“군민과 함께 뛰는 장성... ‘기회와 성장의 해’ 선언”

올해 새해설계 김한중 장성군수

‘장성 방문의 해’ 운영... 스포츠·관광·경제·복지 강화 윈터랜드 프로젝트·스마트농업 등 성장동력 확보

“군민과 함께 뛰며, 2025년을 ‘기회와 성장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스포츠, 문화,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 기회를 바탕으로 장성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올해 장성군은 오는 4월 열리는 제 64회 전남체전과 제33회 전남장애인 체전을 필두로 ‘장성 방문의 해’를 운

영해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방침이다. 군 방문 편의성을 높이고 사계절 축제가 이어지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세계유산 필암서원 콘텐츠 발굴,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등 관광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장성 윈터랜드

드 프로젝트’를 비롯해 ▲428억원 규모의 농촌협약 ▲270억원 규모 대창동 도시재생사업 ▲300억원 규모 장성호 관광지 명소와 사업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 769억원이 확정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과 지방산업단지 신규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청년들에게 스마트농업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301억원 규모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삼계면 국립야생동물생태센터와 연계해 장성레몬 등 ‘K-야생동물’

의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을 개척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황룡강을 생명과 문화의 강으로 재탄생시키고, 축령산 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해 숲과 섬이 이어지는 지역을 만든다. 이와 함께 신규 소각시설 설치와 청운지하차도 개설 등을 통해 ‘환경’과 ‘안전’이라는 기본도 철저히 지켜간다. 군민 행복을 위한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과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공공립어린이집 확충,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어르신 100원 행

복택시 운영 등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백양사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최초로 100만 방문을 돌파하며 장성 관광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올해는 백양사를 포함해 축령산, 장성호, 황룡강 등 전역에서 역대 최대 방문객을 맞이하며 ‘1천만 관광시대’의 서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중 군수는 “군민과 함께 뛰며, 모두의 노력을 하나로 모아 2025년을 ‘기회와 성장의 해’로 만들겠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군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화순팜 작년 매출 36억 달성... 전년비 2배 ↑

설 맞이 전 상품 20% 할인 이벤트 화순군은 8일 “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의 지난해 총 매출액이 36억7천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8년 개설된 화순팜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화순팜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2023년도에는 매출 16억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2배로 올라 역대 최고 매출인 36억7천만원을 달성했다. 특히 화순 농특산물인 한우, 기정떡, 화순쌀, 미니파프리카, 장어, 보리굴비, 복숭아, 사인머스켓, 토마토, 돼지고기,

돼지감자차, 전통약과 등이 고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위탁운영 했던 화순팜은 올해부터 화순군이 직접하면서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회원가입부터 상품 주문까지 전화 1통으로 가능하게 해 온라인 주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점이 주요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명절 이벤트, 새봄맞이, 축제 연계, 여름 이벤트, 우체국 브랜드관 등 시기별 다양한 이벤트와 SNS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화순팜을 알렸다.

나이가 화순 고인돌 축제, 명절 직거래장터, 동구청과 협업을 통한 총장축제, 동구청 직거래장터, 서울시장 광장 직거래장터 등 타 지역의 다양한 행사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고, 화순팜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판매했다. 구원진 농촌활력과정은 “앞으로도 화순만의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팜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을사년 설맞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 상품 20% 할인쿠폰(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회원에게는 2천 원 할인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화순=이병철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 주요 현안사업 점검 본격 행보

신년 첫 현장 간부회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등 5개소 방문 공영민 고흥군수가 신년 첫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하며 주요 현안 쟁점이 나왔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부서장, 읍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군정 주요 사업장 5개소를 방문해 현장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고흥군의 3대 미래 전략산업 중 하나로 2031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나로우주센터 일원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 찾은 곳이다. 군은 고흥수변 노을공원 유류부지에 노을 전망대와 휴게공간을 조성해 고흥만 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흥군립 하늘공원과 도양 복합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점검하며 정주여건 개선 의지를 다졌다. 공영민 군수는 “2025년에는 고흥군이 더욱 발전하고,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협력해 사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천진기자

공영민 고흥군수가 신년 첫 현장 간부회의를 열고, 고흥군립하늘공원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고흥군 제공>

구례군,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12월말까지 반 가격에 이용 가능 구례군은 8일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업기계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를 50% 감면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은 2020년 4월 코로나19 확

산 대응책으로 시작된 이후 매년 농업기계 활용도가 약 20%씩 증가하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조치가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대농업기계 활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눈 덮인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지난 7일 내린 흰 눈이 담양군 담양읍에 위치한 메타세쿼이아길을 덮어 동화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이곳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이자 산책로로, 겨울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겨울철 취약계층 긴급 보호 대책 마련

경로당 부식비·저소득 어르신 난방비 지원 담양군은 8일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및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며, 설 전까지 모든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천만 원을 투입해 2천2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 148세대에 10만원 상당의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병호 담양군수는 “이번 지원 대책이 취약계층 가구들의 겨울철 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근 기자

순천시, 모든 출생아 출생수당 월 20만원 지원

소득 수준 관계 없이 2024년생부터 순천시는 8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월 20만원의 출생기반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전남도와 순천시가 공동으로 업무 협약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 중 전남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 및 보호자가 모두 순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세대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가 1세가 되는 2024년생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순천시와 전남도에서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출생아가 1세가 되기 1개월 전에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

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순천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생아 출생장려금 첫째 500만원, 둘째 1천만원, 셋째 1천500만원, 넷째 이상 2천만원 지원 ▲산후조리비용(100만원) ▲첫만남이용권(300만원) ▲육아용품 구입비(50만원) ▲한방접약지원(40만원) ▲아동수당(월10만원) ▲부모급여(100만원) ▲문화·복지 혜택 25종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순천=정기기자

정기명 여수시장, 여수국가산단 무재해 기원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 ‘안전 최우선 가치 삼고 노력’ 여수시는 8일 “정기명 여수시장이 새해를 맞아 여수국가산단의 안녕과 근로자 무사고 기원을 위해 ‘2025년도 여수국가산단 무재해 안전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여수산단건설업협회 주관 한 안전위원회에는 노동단체와 유관기관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건립된 여수국가산단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 및 안전기원탑에서 처음

기원제 제례는 초혼관(여수산단건설업협회)을 시작으로 아현관(전국플랜트노조) 여수지부장·여수시장·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등 유관기관장, 증원관(임원·회원사 대표) 순서로 거행됐다. 정기명 시장은 “매년 영취산 봉오재에서 진행한 안전위원회가 올해는 이곳에서 개최돼 더욱 뜻깊다”며 “올해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일하기 좋고 안전한 산단 조성에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중흥동 50·3단지 공원에 위치한 ‘여수국가산단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 및 안전기원탑’은 전국 최초로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를 위해 조성됐으며, 여수시 노사민정이 재원을 마련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해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여수=김진선기자